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전기정보공학부 최재우

22학년도 2학기 독일 뮌헨 공대 (TUM) 파견

1. 동기 및 파견 지역/학교 선정 이유

군 제대 후 더 다양한 배경과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는 저에게 교환학생은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여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와 덴마크와 접해 있는 독일이 저에게 가장 적합한 국가라 생각했습니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치안이 좋은 뮌헨을 특히 생각 중이었는데, 뮌헨 공대 (TUM)가 공과대학으로 상당히 좋은 학업 환경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며 새롭고 즐거운 경험도 할 수 있기에 뮌헨 공대로 선택했습니다.

2. 출국 전 준비사항

a. TUM 등록 및 기숙사 신청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TUM 파견이 확정되면, TUM에서 교환학생을 담당하는 분이 직접 메일을 보내줍니다. 메일에 나온 절차를 따라 하면 TUM에 정식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4월 말쯤 서울대학교 재학증명서, 성적표, CV, Motivational Letter, 수강계획서 등을 TUM 사이트에 올려야 합니다. 이후 7월쯤 TUM에서도 합격했다는 내용이 같은 분으로부터 메일이 오게 됩니다. 메일에 적힌 절차를 하나씩 밟게 되면 첫째로 학교 측에 입학금과 비슷한 취지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독일 대학들은 등록금이 없습니다. 다만, TUM에 학생증 발급 비용을 보내야 하는데, 이 학생증의 교통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증을 갖고 있음으로써, 한 학기인 총 6개월 동안 뮌헨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평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와 주말&공휴일에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학생증을 받게 되면 뮌헨 교통기관인 MVV 표시가 써 있습니다. 송금해야 하는 기간이 길지 않고 국제 송금이라 시간이 소요되기에 메일을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학생증에 인쇄될 사진을 올려야 합니다. TUM online이라는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사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공보험에 가입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엑스파트리오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개인적으로 메일을 독일 공보험을 가입 신청하였습니다. 독일에서 행정 처리는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느린 편입니다. AOK와 함께 TK라는 공보험에도 메일을 보냈는데, AOK의 경우 이틀 정도만에 답장이 온 반면 TK는 일주일 조금 넘게 답장이 왔습니다. 빨리 답장이 왔던 AOK로 가입신청을 하면 AOK 측에서 학교로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줍니다. 학교 측에는 가입 신청이 완료됐다는 AOK에서 보낸 메일을 첨부하여 보내면 됩니다.

b. 비자 신청

대다수의 독일 교환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비자입니다. 쉥겐 협정 국가의 경우 비자 없이 180일 중 90일을 체류할 수 있지만, 교환학생인 저의 경우 5개월 가까이 체류하므로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 비자의 경우, 한국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 독일 현지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받기 위해서는 독일 대사관에 '테어민'이라는 예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7, 8월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 테어민을 하므로 6월 전에 신청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테어민을 할 때 '슈페어konto'와 독일 대학 합격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비자가 나오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테어민을 하기 위해 찾아보니 빈 날짜가 없어 독일 현지에서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 받을 경우, 한국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슈페어konto'가 필요 없습니다. '슈페어konto'란 독일에서 유학생이 생활하는 동안 매달 평균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액을 용돈과 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체류할 개월만큼의 돈을 슈페어konto에 일시불로 송금을 하면, 이후 독일 체류 기간동안 매달 학생에게 정해진 만큼 지급됩니다. 한국에서 받으려면 슈페어konto의 존재가 필수적이지만, 현지에서는 그만큼의 현금이 은행계좌의 존재함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금 유용성에서는 현지 비자발급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단점도 존재합니다. 비자 발급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뮌헨에서는 외국인청 사이트에서 비대면으로 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인적사항과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이후, 외국인청으로 방문하라는 테어민 날짜가 적힌 메일이 오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이후 테어민 잡히는 날짜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저보다 일주일 일찍 신청한 친구는 저보다 3주 뒤에 테어민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걸리는 기간의 원리는 확실치 않지만, 저는 온라인 신청 후 3주 정도 이후에 테어민이 잡혔습니다. 가장 오래 걸렸던 친구는 10주 정도의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입국한지 90일 이후로 비자가 없을 경우 다른 국가로 방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발급

까지 오래 걸리는 점은 큰 단점입니다. 테어민이 잡혀 실제 외국인청을 방문하면 110 유로 정도의 금액을 결제하게 되고 임시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후, 한 달 이내 실제 비자를 발급받을 거라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실제 비자를 받는 기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테어민 후 3주 뒤에 받게 됐지만, 5주 이상 걸리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비자 문제로 속 썩이고 싶지 않으면 꼭 한국에서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c. TUMi 프로그램 지원

TUMi에서는 뮌헨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합니다. 오케스트라 감상이나 다른 도시 방문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경험할 수 있기에 선착순 신청이 시작되면 금방 매진됩니다. 미리 결제 방법을 입력해두는 것이 신청에 유리합니다. 학기 시작 전 두 개의 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하나는 'party animals', 다른 하나는 'culture creature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자는 9일 정도 연속으로 만나며 대부분 독일 맥주를 마시며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그 후자인 'culture creatures'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 학기 새로 생겨서 이번 활동을 통해 점점 확대해갈 예정이라 합니다. 5일 연속으로 활동하며 'party animals'와는 다르게 문화체험을 중점으로 활동해갑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신청했고, 정말 만족스럽게 마쳤습니다. TUM에 오는 다른 분들에게 제일로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첫 날은 icebreaking 목적으로 창의활동 등을 합니다. 서로 이름과 국적 등을 얘기한 이후 저녁 식사를 하며 더 친해지는 기회를 가집니다. 다음 날에는 TUM 옆에 있는 미술박물관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오케스트라를 관람합니다. 셋째 날에는 뮌헨 남부의 산을 등산합니다. 알프스 근처의 산으로 하이킹 레벨이 '쉬움'이지만 이는 독일인의 기준입니다. 체력이 평균보다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이킹은 쉬는 것을 추천합니다.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바이에른 주 뮌헨 근교 도시로 여행을 갑니다. 레겐스부르크와 뉘른베르크를 각각 다녔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는 동안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당시 친해졌던 친구들과 학기 중에 꾸준히 만나면서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가는 분위기도 또한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3. 학업 및 학교생활

a. 수강 신청

수강 신청은 tumonline.de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대부분

의 수업들이 학기 동안 계속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공 수업과 같은 경우에도 10월부터 시작하여 학기 중에 자유롭게 수강신청도 가능하고 수강 취소 또한 가능합니다. 언어수업이나 세미나 수업과 같은 경우에는 수강신청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빨리 찾아보고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수업의 경우 ECTS와 SWS라는 방식으로 학점이 표시됩니다. SWS란 한 주 내에 몇 시간의 수업이 있는지 알려주는 단위입니다. 3SWS이면 15주 동안 매주 3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ECTS란 유럽에서 쓰이는 학점 제도로 수업시간과 함께 집에서 공부해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5ECTS의 경우 3시간의 수업과 2시간 정도의 별도 공부를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의 경우 학과마다 다른 campus를 쓰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기정보공학과 수업의 경우 main campus에서 수업을 열며, 컴퓨터공학과 수업의 경우 Garching campus에서 수업을 합니다. 두 campus 간의 이동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므로 어느 학과에서 열리는 수업인지 확인하고 수강신청해야 합니다.

b. 시험 신청

우리나라와 달리 수강신청을 하였다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강신청을 하더라도 시험을 신청하지 못하면 그 과목의 학점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수강 신청한 과목들 중 시험 치루기를 희망하지 않으면 수강 취소를 할 필요없이 시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시험은 보통 2위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스케줄이 존재하므로, 시험 날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10월에 개강하여 3월까지 학기가 진행합니다. 다음 학기에 서울대학교에서 학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3월 전에 있는 수업을 수강하거나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뤄도 되는지 교수님께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c. 학업 환경

각 캠퍼스마다 도서관이 존재합니다. Main campus의 경우, U2노선의 Theresienstraße역 근처에 있습니다. 2정거장만 더 가면 뮌헨 중앙역인 만큼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3층으로 이루어졌지만 규모가 많이 작고 보통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카페의 흔히 말하는 '카공' 분위기의 카페는 뮌헨 중앙역의 'Coffee Fellow'라는 곳이 가장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카페가 6시 반에 끝나므로 저녁에는 도서관으로 가야합니다. 'Starbucks'의 경우 저녁 9시까지 하는 가게들도 있지만 자리가 많지 않아 공부하기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4. 뮌헨 현지 생활

a. 교통

뮌헨의 대중교통은 트램, 버스, 전철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학생증은 semester ticket 역할을 하여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유료이므로, 1회권을 사거나 day ticket을 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권의 경우 가장 저렴한 것이 3.7유로로 5천원 정도로 상당히 비쌉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학생들은 Isar Semester ticket이라는 교통권을 200유로 근처에 구매합니다. 이 티켓과 학생증이 있으면 6개월 동안 어느 시간이든 버스, 트램, U-Bahn, S-Bahn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뮌헨은 상당히 큰 도시이며, 시내 중심부터 시작해서 M존, 1존, 2존, ... , 6존까지 존재하는데, 모든 존을 학생증과 Isar Semester ticket을 지니면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카드를 태그하지 않습니다. 검문하는 기계가 존재하지 않아 표가 없어도 대중교통을 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끔 검문하는 사람들이 전철에 타서 유효한 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도 총 6번 정도 검문하였는데, 항상 그 칸에 한 명은 걸려서 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혹시 표가 없을 경우, 60유로의 벌금을 내며, 학생증이나 semester ticket을 두고 와서 검문의 걸릴 경우 이후 중앙역에 있는 service center에 학생증과 semester ticket을 보여줌으로써 벌금을 5유로로 낮출 수 있습니다. 버스와 트램은 한 번도 검문하지 않았습니다.

전철은 S-Bahn과 U-Bahn으로 나뉩니다. 보통 뮌헨 중심 시내는 지하철인 U-Bahn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U-Bahn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존재하며, U7과 U8는 주말에만 운행합니다. S-Bahn의 경우, 뮌헨 중심 상권의 일부역은 지하로 통과하지만 대부분의 역을 지상에서 이동합니다. 뮌헨 외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S-Bahn을 타고 이동하면 S1부터 S8까지 존재합니다.

b. 식생활

뮌헨의 물가는 다른 유럽 도시와 비교해도 높은 편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마실 것을 시키면 20유로 정도 나오게 되는데 한화 2만 8천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나 집에서 직접 요리하여 먹습니다. 식재료의 경우 마트에서 구매 가능한데, 큰 슈퍼마켓으로는 Aldi, Penny, Lidl, Edeka, Rewe, Netto 등이 있습니다. 가격은 Aldi, Penny, Rewe가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Lidl 과 Edeka의 경우 취급하는 상품이 더 다양하고 품질도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의 마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는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운데, 뮌헨 중앙역 지하 1층의 Edeka Ernst의 경우 일요일도 개장하며 모든 요일 오후 11시까지

입니다. 일요일에는 많은 식당들이 닫으므로, 급할 경우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c. 크리스마스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는 11월부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전까지 각 도시마다 크리스마켓이 열리며 큰 도시에서는 여러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각 점포에서는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상품들이나 먹을 것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도시마다 다른 특색을 띠고 저녁에는 일루미네이션 등과 어우러져 포근하지만 설레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독일 내에서 추천할 만한 크리스마스 마켓은 드레스덴, 뉘른베르크 등이 있습니다. 특히 드레스덴은 오래된 크리스마스 마켓을 자랑하며 각 점포 간판부터 다른 도시와 달리 훨씬 화려합니다. 다른 나라로는 체코의 프라하와 오스트리아의 빈 크리스마스 마켓을 추천합니다.

d. 주변 국가 여행

주말이나 수업이 비는 요일에는 주변 국가로 여행을 가곤 합니다. 뮌헨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여 동서남북에 있는 다른 나라와 도시로 이동하기 용이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뮌헨 공항은 저가 항공사가 이용하지 않아 비행기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를 방문 시 꽤나 큰 금액을 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여 떨어진 도시로 여행을 가곤 합니다. 기차의 경우, db에서 나오는 Bahn카드를 구매할 경우, 3개월 동안 50프로 표 할인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기차 여행을 자주할 사람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버스의 경우, 뮌헨 중앙역 다음 역인 München Hackerbrücke에 터미널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도시로 가는데, 운행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야간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로마를 버스로 가기 위해서는 약 12시간 정도의 버스 탑승 시간이 소요됩니다. 비행기 가격의 4분의 1정도이므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버스 이용도 추천합니다. 장거리 이동시, 2층 버스의 경우, 2층 좌측 최전방 좌석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1층 버스의 경우, 우측 화장실 바로 앞 자리를 추천합니다. 두 좌석 모두 뒷좌석이 없어 자유롭게 쉴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리 예매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가능합니다. 근처 도시를 3~4명에서 가려면 렌터카도 좋은 옵션입니다. 뮌헨 근교에는 로맨틱 가도라는 길이 존재하여 바이에른 주 소도시들을 통과하면서 예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렌터카로 국경을 지날 경우, 비자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권과 비자를 챙겨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고속도로가 무료이지만,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의 경우 비네티라는 교통 티켓을 미리 구매해야 합니다. 비네티는 국경을 넘기 전 휴게소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의 경우 톨게이트가 존재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크로아티아와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인 돌로미티가 렌터카 여행으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5. 교환학생을 마치는 소감

어쩌면 인생의 하나뿐일 기회인 교환학생을 끝맺으며 아쉬움도 즐거움도 같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올 경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더 잘해내어 갈 수 있을 것과 같은 아쉬움이 들지만, 이러한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들으면서 다른 나라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제공해준 공대 국제협력실과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친구들이 교환학생 가는 것을 고민한다면 전 꼭 추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만난 인연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교환학생 전보다 후에 더 성장한 모습일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힘든 순간도 많이 찾아오겠지만, 여기서 겪었던 많은 추억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